

동시대 춤을 보는 레페키의 시선

Lepecki's Gaze on Contemporary Dance

윤지현*

André Lepecki(2016), *Singularities: Dance in the age of Performance*(New York: Routledge).

얼마 전 한국의 가수 정태춘·박은옥의 데뷔 40돌 기념사업에 관한 기사를 보았다. 그는 십여 년 전 예술가로서의 '생산'과 '소통'을 접기로 선언함으로써 세계와의 불화를 시작했다. "시장이 모든 걸 장악한 세상, 시장 밖에서 소통하고 싶다"¹⁾는 시인가수의 바람은, 그 자체로 세상의 정치의제와 연결되는 예술의 한 지점이자 예술적 실천이다. 이는 "신자유주의의 폭력적 억압에 수반될 수밖에 없는 '자아의 퍼포먼스(performances of the self)'"²⁾의 의미로 동시대 퍼포먼스를 넓게 바라보는 안드레 레페키(André Lepecki)의 시선과 연결된다. 그래서인지 퍼포먼스 시대의 춤을 다룬 레페키의 *Singularities: Dance in the age of Performance*(2016) 읽기는 정태춘의 시와 노래, 글씨들과 자주 겹쳐졌다.

레페키의 두 번째 단독저술인 이 책은 춤과 퍼포먼스에 한정된 예술 내부에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춤과 정치적 역사적 의제와의 접점에 초점을 맞춘다. 근대 '안무(choreography)'의 개념을 문제시했던 첫 저술 *Exhausting Dance: Performance and the Politics of Movement*(2006)³⁾의 후속작이라 할 수 있다. 언어적 기호, 곧 텍스트에 종속된 몸의 움직임으로 춤을 이해하는 기존의 방식을 비판적으로 성찰한다는 점에서 그 맥을 같이 한다. 저술의 구성방식도 전작(前作)과 유사하다. 실험적 춤과 퍼포먼스를 사진과 함께 상세히 묘사하고, 비판무용학의 관점으로 독해한다. 다만 논의의 시공간적 범위가 넓어졌다. 1990년대의 유럽과 미국 컨템포러리 춤과 시각예술에서, 2000년대 이후 남미로 대표되는 나머지 세계의 동시대 공연사례까지로 확장되었다. 한편 책의 1장과 4장, 6장은 각기 다른 저널에 실렸던 글

* 한국예술종합학교 강사, jhydance@gmail.com

1) 서정민(2019.3.8.), '데뷔 40돌' 정태춘·박은옥 "이제 시장 밖 예술 이야기할 때",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884990.html#csidxd923ad3c880a97fb5b21a2d0f0a2a08>, 2019. 3. 8.>.

2) D'Amato, A.(2017), *Singularities: Dance in the Age of Performance* by André Lepecki(review), *Dance Research Journal* 49(3), p.101.

3) 그의 전작인 이 책은 『코레오그래피란 무엇인가 - 퍼포먼스와 움직임의 정치학』로 국내에 번역되었으며, 무용학은 물론 퍼포먼스와 시각예술 연구 등에서 널리 읽혔다(안드레 레페키(2006), 『코레오그래피란 무엇인가-퍼포먼스와 움직임의 정치학』, 문지윤(역)(서울: 현실문화, 2014)).

들이며, 수정, 보완된 것으로 소개된다. 4장 “아카이브로서의 몸: 재현의 의지와 춤의 사후(body as archive: will to reenact and the afterlives of the dances)”는 *Dance Research Journal*를 통해 이미 국내 다수 무용연구자들도 접한 것으로 보인다.⁴⁾

세상이 합리성을 가장한 시장주의, 산업주의 논리에 꼼짝없이 사로잡혀있다. 춤의 정치성과 예술의 조건을 주목해온 레페키의 손끝은 주저 없이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를 가리킨다. 그는 신자유주의가 우리의 행동에 스며들었다며, 예술 만들기와 예술에 관한 담론 만들기조차도 이에 포획되었다고 전제한다.⁵⁾ 서론에 해당하는 글에서 그는 신자유주의의 조건이 동시대 인간주체에 스며들었다고 관찰한다. 야만이 합리성인양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신자유주의의 조건이 예술과 이론을 포함해 우리가 느끼고 감각하는 것의 신경체계를 통해 공유되고 있다는 것이다. 레페키는 이를 넘어설 잠재적 힘을 ‘퍼포먼스 시대의 춤’에서, 그리고 그 극복의 순간과 차원을 동시대 실험적 춤이 내보이는 특이성들(singularities)에서 목격했다.

특이성 또는 단독성으로 번역되는 Singularities는 수학과 물리학, 철학, 그리고 근래 로봇공학에 이르기까지 여러 학문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이다. 용어의 긴 역사와 함께 그 함의가 형성되어 왔으며, 당연하게도 다양한 학술적 용례도 축적되었다. 지구탄생의 일설인 빅뱅의 순간과 블랙홀의 존재를 말하거나, 인간의 능력을 압도해버릴 AI로봇의 출현과 같은 사례를 소개할 때 흔히 사용된다. 레페키의 특이성은 들뢰즈의 개념에서 왔다. 들뢰즈는 특이성을 “특정한 시기와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사회적 실천을 둘러싸고 구성되는 계열에 고유한 가치만을 인정한다. 그러한 실천의 장 및 관계에 고유한 유일무이한 것”의 의미로 사용한다.⁶⁾ 국내 들뢰즈 철학이 용어의 번역어로 ‘단독성’을 쓰는 이유를 이 정의가 보여준다. 이를 확장하면 특이성이란 스스로 다른 것이 되면서도 서로 소통해나가는 과정 자체이다. 레페키는 동시대 퍼포먼스와 춤의 실험적 작업들을 예술의 보편성으로도, 예술가의 개별적 특수성으로도 환원할 수 없는 고유성, 곧 특이성으로 관찰한다. 그는 이들 특이성을 근거로 21세기 퍼포먼스, 특히 춤에 근대 안무의 개념을 넘어설 강력한 전환의 힘이 잠재한다고 주장한다.

레페키는 5개의 특이성을 소개한다. 이들은 물(질)성(thingness), 어둠(darkness), 동물성(animality), 지속성(persistence), 견고성(solidity) 등이다. 미국과 남미, 유럽 출신 안무가의 2000년대 이후 공연들을 소개하는 각 장은 이들 특이성을 차례로 다룬다. 레페키는 춤과 퍼포먼스의 드라마트루그와 안무 구조를 우주내재론, 포스트휴머니즘, 심상, 일시성, 흑인문화연구 등의 서구 이론으로 분석한다. 각 장은 각기 하나의 특이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이들 개념은 배타적으로 다뤄지기는 어렵다. 레페키는 자신이 선택한 동시대 춤과 퍼포먼스 사례의 소개와 묘사를 근거로 설명을 시도하는데 각각의 춤과 퍼포먼스에는 그가 주목한 특이성들이 느슨하게 연결된 채로 공존하기 때문이다.

다양한 춤과 퍼포먼스의 사례들이 그의 논의에 차용되고 있지만 1장의 비누거품으로 통제되지 않는 물질성에 대한 통찰을 보여준 콜롬비아 예술가, 마리아 호세 아르요나(María José Arjona)의 2009년 베를린 IN TRANSIT 축제 참여작이자 *White Serieses*의 일부인 *Untitled7*, 2장은 밝음과 백색의 문명

4) André Lepecki(2010), *The Body as Archive: Will to Re-Enact and the Afterlives of Dances*, *Dance Research Journal* 42(2), pp.28-48.

5) André Lepecki(2016), *Singularities: Dance in the age of Performance*(New York: Routledge), p.3.

6) 윤수중(2007), 들뢰즈·가타리 용어설명, 『진보평론』 31(봄호), p.370.

과 어둠과 검은색의 야만을 대비하며 뿌리 깊은 인종주의를 비판한 브라질 예술가 마르셀로 이블린(Marcelo Evelin)의 작업 등이; 3장은 인간과 동물 사이의 경계를 대비하며 동물성을 제거한 브라질 안무가 마르셀라 레비(Marcela Levi)와 아르헨티나 예술감독 루치아 러소(Lucía Russo)의 2011년 리우 데자네이루 초연작품인 *Monsterous Natured: Cracked Matters* 등이 주목된다. 신체성과 아카이브 사이의 생산적 긴장을 통해 춤의 지속성을 논한 4장은, 미국 퍼포먼스 예술가인 론 아티(Ron Athey)와 줄리 톨렌티노(Julie Tolentino)의 2008년 작품 *The Sky remains the Same*을 상세하게 소개한다. 아티는 *The Sky remains the Same*의 부분 퍼포먼스인 *Self-Obliteration #1*(자기삭제 #1)를 공연하는데 톨렌티노는 아티가 공연한 퍼포먼스를 자신의 몸으로 아카이빙을 수행함으로써 그 간극을 드러낸다. 5장은 랄프 레몽(Ralph Lemon)과 발터 카터(Walter Carter)의 사례로 춤과 역사성을 연결시킨다.

특이성 개념을 비롯해 책이 다루는 제 개념들을 이해하기는 녹록치 않았다. 서구 철학의 개념들이 난맥상처럼 등장하고, 다시 새로운 함의로 진화하는 탓이다. 그럼에도 그것이 이 책을 읽어내기에 치명적 장애가 되지는 않는다. 레페키가 선택한, 예술실험의 최전선에 선 공연사례들이 유발하는 호기심 때문이다. 레페키의 풍부하고 생생한 묘사는 직접 보지 못한 작업들임에도 구체적인 이미지로 떠올리게 해준다. 물론 이는 월드와이드웹 시대의 문명의 이기를 활용한 검색이 큰 도움을 준다. 작업영상과 관련 정보, 작가정보를 웹으로 검색하며 찾아보는 수고가 자연스럽게 동한다. 작품과 작가들을 알아가며 그 가 펼친 논의의 퍼즐을 맞추는 재미가 의외로 쏠쏠하다.

실험적 춤의 특이성은 특정 작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대 사회적 정치적 지형에 놓인 예술과 예술의 조건 속에 편재하는 것으로 읽힌다. 물리적 거리를 두고 제각기 포진해있는 예술가들의 작업에서 이들 특이성은 반복과 중첩, 출현과 퇴조의 고유성을 띠며, 낯설게 생성된다. 그 낯설과 다름 속에서 공히 연결되는 무엇의 이유를 동시대성이라는 공통의 시공간적 경험에서 찾게 된다. 예술가들 사이의 그리고 예술가와 관객 사이의 거리에도 공감의 연대가 포착되는 이유이다. 이는 또한 레페키의 논의가 신자유주의와 신식민주의, 인종주의에 대한 공분 속에 근대예술로서의 춤을 배치하는 전략의 이유로 이해된다. 신자유주의의 조건은 촘촘하고 전면적이다. 근대 이성에 기반을 둔 과학기술과 합리성의 증대에도 빈부격차의 골은 갈수록 깊어지고, 테러와 전쟁은 끊이지 않으며, 난민문제, 환경문제, 인종차별을 위시한 소수자 차별문제 또한 개선될 기미가 없다. 레페키는 이러한 동시대 삶의 조건을 직시하며 예술의 가능성을 묻는다. 예술과 예술담론은 무엇이어야 하며, 무엇을 실험하고 실천해야 하는가에 대한 레페키식 모색과 답이 이 책에 있다. 퍼포먼스 시대의 춤의 특이성은 공연예술의 미학에서 나아가 정치적 역사적인 힘의 회복을 모색한다. 이에 이미 존재했던 어떤 것으로도 환원되지 않을 21세기 춤과 퍼포먼스를 상상한다.